

TV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EBS1

Table listing EBS1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31일(음 2월 12일 丙午)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March 31st, lis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좌충우돌 로맨스 재미있게 보세요”

‘성균관 스캔들’ 박유천·이희명 작가 재회 SBS ‘냄새를 보는 소녀’ 내일 첫 방영

3년 전 방영된 SBS TV 드라마 ‘육탄방 왕세자’는 조선 왕세자로 분한 박유천의 열연에 이희명 작가의 웃음과 진지함을 잘 버무린 대본에 힘입어 성공을 거뒀다. 다음 달 1일부터 같은 방송사에서 방영되는 수목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는 박유천(사진)과 이 작가의 재회로 기대가 더 큰 작품이다. 드라마는 “무감각한 남자와 초감각적인 여자가 벌이는” 로맨스 코미디다. 이 작가가 동명 웹툰을 대본으로 옮겼으며 ‘황금 신부’ 등을 만든 백수찬 PD가 연출한다. 박유천이 이른바 ‘비코드 연쇄살인사건’으로 여동생을 잃고 범인을 잡고자 경찰이 된 청년 박무각을 맡았다. 박무각은 살인 사건 충격으로 미각과 후각을 잃고 어떤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인물이다. 상대역인 신세경은 냄새 입자를 눈으로 보는 기이한 능력을 갖춘 22살 오초립으로 분했다. 순경이 아닌 강력계 형사가 되고픈 박무각이 경찰견보다 뛰어난 능력의 오초립에게 수사파트너를 제안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드라마는 오초립 또한 바코드 연쇄살인 사건으로 부모를 잃고 기억을 잃은 인물로 설정했다. 연쇄살인 사건이 주인공들의 연결 고리이자 갈등 요소로 작용하지만, 서로 다른 감각 문제로 애로를 겪는 주인공들의 좌충우돌과 뜻밖한 로맨스가 관심 포인트다.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사옥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 참석한 박수찬 PD는 “살인 사건과 경찰이 나온다고 해서 무거운 드라마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남궁민과 윤진서가 박유천, 신세경과 함께 사각 관계를 이룬다. 남궁민은 요즘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캐릭터인 매력적인 유명 요리사 권재희를, 윤진서는 박무각의 동료인 광역수사대 프로파일러 역할을 맡았다. 이번 드라마는 한류스타 현빈과 한지민을 기용하고도 고전했던 전작인 ‘하이드 지킬, 나’의 후속작이라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끈다. 박유천(29)은 “맛을 때 무표정을 짓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사람이 맞으면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인데 그걸 억제하는 일이 정말 생각보다 힘들네요”라고 고충을 털어 놓았다. “평소 음식 자체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박유천이지만 대사가 캐릭터를 위해 촬영 중 많이 먹어대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



박유천은 “진부하거나 썰렁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신세경이 많이 올려줘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석한 백수찬 PD는 “이런 상황에서도 무표정한 박무각과 방방 또는 매력의 오초립이 주는 묘한 매력 있다”면서 “박유천이 이렇게 훌륭한 연기자인 줄 미처 몰랐다”고 설명했다. 박유천은 “이희명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드라마를 수월히 선택할 수 있었다”면서 작가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그룹 JYJ로도 활동 중인 박유천은 음악 활동 계획에 대해서 “꾸준히 하겠지만 워낙 김재중, 김준수가(음악적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재중이 다음날 군에 입대하는 데 대해 “어제 송별회를 했다”면서 “다른 바람은 없고 다치지 않고 몸 조심하더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무엇보다 꾸밈이 없는 연기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서 촬영 중이다. ‘냄새를 보는 소녀’를 통해 시청자들이 좀 더 제 연기를 보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매력 충만 모델들의 연기 도전기

안재현·송재림·이성경 ... “비주얼은 훌륭 ... 발음·연기력 아쉬워”

런웨이를 뒤로 한 채 안방극장으로 걸어 들어온 모델 출신 연기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개중에는 진입 장벽이 높은 지상파 드라마 주인공이나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단숨에 꿰찬 새내기 연기자도 있다. KBS 2TV 월화드라마 ‘블러드’ 안재현과 KBS 2TV 수목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 송재림, MBC TV 주말드라마 ‘여왕의 꽃’ 이성경이 바로 그들이다. ◇ 싱크로를 훌륭했지만... ‘얼음’ 연기로 못매=판타지 의학 드라마 ‘블러드’는 연기 경험이 짧은 안재현(28)을 주인공으로 과감하게 발탁했다 해서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20부작 드라마가 중반을 넘어선 지금 안재현에 대한 시청자 평가는 후한 편은 아니다. 비삼한 두뇌의 벨파이어 의사 박지상으로 분한 안재현은 힘이 잔뜩 들어간 대사 처리에다 시종일관 뽀뽀하게 굳은 모습으로 질타를 많이 받았다. 안재현은 외양이 캐릭터와 높은 싱크로율을 보는 것은 틀림없지만, 스타일링이 취한 남자 조연에서 지상파 원톱 남자주인공으로 갈아타기에 간격이 컸다. 정장급 모델로 활동한 안재현은 작년 초 SBS TV 판타지 ‘별에서 온 그대’로 정극 연기에 첫 도전, ‘천송이 동생’으로 이름을 알렸고 ‘너희들은 포위됐다’에 연이어 출연했다. 연기 경험이 1년 남짓한 안재현을 두둔하는 주장도 있다.

의 주인공이 되기는 같은 방송사의 가장 결혼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이하 우결)를 통해서다.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서 송재림이 맡은 김도 사범은 ‘우결’ 속 능글맞으면서도 미치 않고 여성들의 로망을 충족하는 송재림의 모습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송재림이 예능으로 구축한 여성 시청자의 지지에 힘입어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김연영 작가가 그리는 캐릭터 자체의 투박한 매력에 적지 않은 사람에게 통한다는 분석이다. 물론 정마리 역의 이화나를 향해 “당마리 씨를 오래 단번도 도와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송재림의 발음이나 연기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올라온다는 김해자와 장미희, 채시라 등 베테랑들의 캐릭터를 재해석한 연기를 보다가 이화나-송재림이 등장하면 맥이 끊긴다고 지적도 자주 눈에 띈다. ◇ ‘팬사’로 떠서 ‘여왕의 꽃’에서 안착=비교적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이는 모델 출신 새내기 중 하나가 바로 ‘여왕의 꽃’에 출연 중인 이성경이다. 이성경이 맡은 강이슬은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출세하고픈 욕망에 사로잡힌 엄마 레나 정(김성경)한테서 버림받고 다른 집에 맡겨진 뒤 자라난 딸같은 딸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러운 얼굴의 이성경은 연기에서도 자연스러움이 묻어난다는 평가를 대체로 받는다. 종중 시선 처리가 불안할 때도 있지만 그의 연기에서 어색함보다는 풋풋함을 발견하는 사람이 많다. 화려하지만 독기를 잔뜩 품은 레나 정(김성경)에 있는 캐릭터에는 안성맞춤인 셈이다. 이성경은 모델 6년차를 맞은 지난해 11월 SBS TV ‘팬클럽, 사랑이야’에 오소녀로 출연해 이미 매력적인 끼를 발산했다. 수광(이광수)의 순정은 몰라주고 아주 제맛대로 굴지만 알고 보면 상처 많고 순진한 여고생 역할을 무난히 소화했다. ◇ 매력 풀풀...어색한 발음·연기는 약점=‘착하지 않은 여자들’에 이르기까지 출연 중인 송재림(30)은 이번 작품을 계기로 사실상 연기자로 새롭게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재림은 지난 2012년 MBC TV 퓨전 사극 ‘해를 품은 달’에서 이원(김수현 분)의 호위 무사 윤으로 잠깐 인기를 얻었다. 그가 화제